

CNI세미나 2015-130

제6차 마을공동체연구회 워크숍

인문학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경북 칠곡(漆谷) 인문학마을 정책 사례]

2015.12.23(수)

제6차 마을공동체연구회 워크숍

- 마을공동체와 관련한 국내외 새로운 연구동향 수집 및 발표
- 마을공동체 관련 연구자 및 활동가들과 지식정보의 공유, 현장 방문공동학습
- 도 및 시군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관련 정책자료의 제공



개 요

- 주 제 : 인문학으로 마을공동체만들기 : 경북 칠곡 인문학마을 정책 사례
- 일 시 : 2015. 12. 23.(수), 15:00~17:00
- 장 소 : 세종시 마을과복지연구소 세미나실 2층
- 참 석 자 : 마을공동체연구회원,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과복지연구소조합원, 충남도민, 세종시민 등 30명
- 주최/주관 :  **충남연구원** ChungNam Institute 마을공동체연구회,  **마을과복지연구소**



진 행 순 서

시 간		소요 (분)	세부 행사내용	비 고
부터	까지			
15:00	15:10	10'	▶ 인 사 말	· 송두범 연구회장 · 권지훈 마을복지연구소장
15:10	16:00	50'	▶ 주 제 발 표 “칠곡군 인문학마을 이야기”	· 지선영 (경북 칠곡군청 평생교육담당)
16:00	17:00	60'	▶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참 석 자 모 두
17:00	17:05	5'	▶ 정리 및 폐회	· 송두범 연구회장

인문학으로 '삶의 숨결 살아있는 공동체' 꿈꾼다



백선기
철곡군수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나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최첨단 정보기기를 만드는 데 인문학적 상상력이 도움이 됐다고 말하면서 인문학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철곡군이 실천적인 인문학으로 주민과 소통하고자 나섰다. 철곡군이 도시의 브랜드로 인문학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낙동강 중류에 자리한 철곡군은 영남 북부와 남부를 이어주는 영남의 허리로써 다른 지역과 소통하고, 세계와 호흡하는 문명교류와 융합의 허브였다. 철곡 사람들은 예로부터 사림 사는 예(禮)와 법

(法)을 중시하고, 소통과 상생의 문화를 소중하게 여겼으로써 국가와 공동체의 대의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수많은 인재를 키워냈다. 유구한 인문학적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두어 도시의 정체성과 특성을 구축함으로써 문화의 격조와 품위가 있는 철곡,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철곡, '삶의 숨결이 살아있는 공동체'로 발전해 나가고자 인문학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철곡 인문학도시사업은 인문학 마을 만들기, 인문학 공모사업, 인문학 기획사업, 인문학 네트워크 사업, 인문학축제의 5개 영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인문학 마을 만들기는 사람 사는 재미를 느끼는 기쁨을 마을공동체 회복에 두고 있다.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인문학적 자원을 발굴하여 이를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300년생 은행나무가 반겨주는 지천면 영오리, 이 작은 마을에서 인문학을 통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400년간 이어 내려오는 마을의 역사를 담은 단상제인 '영오리 천왕제'를 복원해 이를 문화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마을 모든 주민들이 합심해 천왕제 보존회와 장단체를 만들었다. 옛것

을 체험할 수 있는 오동박물관과 '삼간정지춤을 추네'라는 마을축제를 개최해 인문학으로 전통을 살리고 주민들이 함께 옛것을 추억하며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철곡군은 앞으로 10개 마을을 인문학 마을로 육성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려 나갈 예정이다.

그 다음으로 인문학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지역의 사회단체, 학술 동아리가 생활에 밀착된 풀뿌리형 인문학 사업을 스스로 기획해 운영한다. 특히 인문학 공모사업은 사업계획서 작성부터 사업 실시, 정산까지 전문 멘토들이 컨설팅을 하는 방식을 채택, 사업의 실효성이 기대된다.

또 특색있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함께 배우는 '인문학 기획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인문학의 마니아층이 확보돼있는 인문학 아카데미, 사람이 인문학임을 잘 보여준 인문학 스토리텔링사업, 마을로 찾아가서 즐기는 '인문학! 예술과 놀다' 등이 깊이있게 다루어진다.

함께 교류하는 인문학 네트워크 사업은 철곡군의 인문학사업을 전국적으로 알려 도시의 브랜드로 만들어 가는 작업이다. 인

문학 포럼,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철곡군의 마을에서 펼쳐지는 전국 대학생 '인문학 활동' 공모사업을 개최해 대학생 농촌활동의 새로운 방안과 주민 중심의 철곡 인문학의 창의성을 보여 줄 예정이다.

끝으로 함께 즐기는 인문학 축제를 개최한다. 주민 주도의 상향식 축제, 지역 마을 단위 중심의 축제를 지향해 철곡군 어디서나 마을의 특색있는 인문학의 향기를 느낄 수 있게 한다.

철곡군이 추구하고 있는 인문학은 주민 중심, 마을중심 인문학이다.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살기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중심은 사람이다. 나를 반듯하게 세우 마을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 나의 인성을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 이것이 철곡군이 추구하는 평생학습과 인문학이다.

이렇게 추진한 결과 철곡군은 조선비즈가 주최하는 '2013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대상'에서 문화교육선도도시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는 등 전국 최고 평생학습 인문학도시임을 재확인 했다. 철곡에 인문학의 꽃이 핀다면 전국에서 가장 행복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창의일본

2015년 12월 02일 수요일 026면 사회

한글 떼 기념으로 쓴 시, 1000권 팔릴 줄 몰랐다카이

철곡 어르신 89명 『시가 뭐고?』

글 빼돌빼돌, 맞춤법 틀려도 문인들 "감성 순수" 출판 권해 "몇 자 기린 건데 부끄럽데이" 수익금 전액 장학금 내놓기로

'시를 쓰라하니 눈아피 캄캄하네/글씨는 모르는데 어짜라고요.'-박점순(74) 할머니의 '글'

'공부시간이라고/일도 놓고/헛둥지둥 왔는데/시를 쓰라 하네/시가 뭐고/나는 시금치씨배추씨만 있는데.'-소화자(72) 할머니의 '시가 뭐고?'

군데군데 맞춤법이 틀린 빼돌빼돌한 글씨체, '절제의 미학'과는 거리가 먼, 투박하기까지 한 표현. 이런 시집이 발간된 지 2주일 만에 초판본 1000권이 매진됐다. 경북 철곡군의 할머니 87명과 할아버지 2명이 함께 낸 시집 『시가 뭐고?』다.

시집은 할머니·할아버지들이 한글을 깨우친 기념으로 만들었다. 지난해 한글을 배우기 시작해 올 5월 시를 지었다. 시를 쓴 데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 감사가 그냥 "짧은 시를 한번 써 보라"고 한 게 전부였다. 그랬더니 할머니들이 이런 시를 지었다.

생활 속의 느낌을 진솔하게 옮겨 놓은 시들도 많았다. 김말순(79) 할머니가 지은 '비가 와야대겠다'는 이렇게 울 가뭄을 노래했다. '비가



1일 경북 철곡군 북삼읍 마을회관에서 할머니들이 직접 쓴 시를 들어보고 있다. 시집은 2주 만에 1000권이 팔렸다. 프라렌서 공정식

쏟아져 오면 좋겠다/풍년이 와야지 대겠다/졸졸 와야지/구구마, 고추, 콩, 도라지/그래야 생산이 나지.' 병구완을 해준 머느리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낸 시, 뒤늦게 글을 배우는 어려움을 표현한 시도 있었다.

철곡군은 처음 할머니·할아버지들이 지은 시 98편을 그냥 보관해 뒀다. 이걸 지역 문인들이 보더니 "감성이 예쁘다"고 평했다. 그래서 시집을 내게 됐다. 철곡군 이한이(54) 평생교육담당은 "그래야 감성이 살아야 할 것 같아 맞춤법이 틀린 부분을 그냥 뒀고, 할머니·할아버지들의 글씨체도 그대로 살렸다"고 말했다. 각 시의 제목 역시 할머니·할아버지

들이 처음에 적어 놓은 그대로였다.

지난달 철곡군이 인쇄료 1300만 원을 들여 151쪽 분량의 시집 초판본 1000권을 찍었다. 출판사 '살창'은 이 시집을 교보문고와 인터넷 서점에 판매 정가 9000원에 내놨다. 그게 2주일 만에 다 팔렸다. 살창 황규관(48) 대표는 "순수한 시골 할머니들이 솔직한 눈으로 바라본 그들의 세상에 독자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가 뭐고?』 서평에서 고영직(48) 문학평론가는 "시인들이여, 시가 뭐고?"라고 문단에 화두를 던졌다.

할머니들은 겸연쩍다는 반응이다. 시집 제목이 된 '시가 뭐고?'를

쓴 소화자 할머니는 "생각나는 거 몇 자 종이에 기린(그린)건데, 아이고 부끄럽데이"라고 했다. 김말순 할머니는 "내가 시인? 그냥 시골 할매라카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철곡군과 출판사는 시집 재판본을 만드는 중이다. 오는 21일에는 할머니·할아버지들에게 출판기념회를 열어주기로 했다. 할머니·할아버지들은 『시가 뭐고?』 판매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내놓기로 뜻을 모았다. 철곡군은 내년에 할머니·할아버지들의 시를 더 받아 『시가 뭐고?』 두 번째 이야기』를 발간할 예정이다.

대구=김윤호 기자
youknow@joongang.co.kr

주 제 발 표

칠곡군 인문학마을 이야기

지 선 영

경북 칠곡군청 평생교육담당

칠곡군의 힘! 평생학습 그리고 인문학!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속의 인문학

풍요로운 인문학의 토양이 있어야 개인이든 국가든
성숙하게 발전한다 - 8월7일 신문, 문화계 인사 소찬

어떤 기술과 발명도 인간에 대한 관심이 깔려있지
않으면 괴물이 된다. - 7월10일 언론사 논설실장 소찬

인문학적 상상력을 확산하는게 성장동력의 열쇠가
된다 - 6월19일 '정부 3.0' 비전 선포식

인문학적 소양이 창조경제의 밑거름이다
- 6월19일 서울국제도서전



칠곡군은



인재의 고장!

- ▶ 낙동강 중심의 영남유학(낙중학)
- ▶ 세명의 국무총리



호국의 고장!

- ▶ 가산산성, 6·25전쟁 다부동전투
- ▶ 낙동강 세계평화문화 대축전 - 평화의 메카



평생학습인문학의 고장!

- ▶ 2004 평생학습도시, 학점은행제 칠곡평생학습대학
- ▶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 인문학도시조성사업



칠곡군의 평생학습과 인문학



【평생학습특별시】

1. 칠곡평생학습대학
2. 칠곡늘배움학교
3. 찾아가는 현장교육
4. 학습동아리 육성
5. 행복학습센터

【인문학도시】

6. 인문학 마을만들기
7. 인문학 공모사업
8. 인문학 공정여행
9. 전국대학생인문학활동
10. 농촌마을문화공동조성사업
11. 인문학특성화사업
12. 마을축제



【평생학습특별시】

1 ▶ 배움의 열정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꿈! **칠곡평생학습대학**

- ▶ 전국 최초 지자체 운영 학점은행제 대학
- ▶ 2003년 칠곡여성농업인대학을 시작으로 12년
- ▶ 칠곡 평생학습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교육브랜드**



- ▶ 학위취득 : 392명 (학사 125, 전문학사 267명)
- ▶ 취업 : 267명
 - 사회복지사 35, 보육교사 134, 방과후교사 41, 기타 57
- ▶ 재학생 : 292명 (재학생 210, 신입생 82)
 - 야간(직장인)과정 활성화, 남성 증가추세
- ▶ 지역을 대표하는 전문학습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평생학습특별시】

2 ▶ 어르신들의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청신문해교육! **칠곡늘배움학교**

▶ **칠곡군에는 18개의 늘배움학교가 있습니다.**

왜관읍 금남리 매봉서당	지천면 신 리 웃갯한글학교
왜관읍 매원리 매화배움학교	지천면 덕산리 한빛배움터
북삼읍 어로리 보람학당	가산면 석우리 선석한글학교
북삼읍 송오2리 금오학교	가산면 학산리 학산배움터
북삼읍 송오1리 태평서당	가산면 학상리 학마을학교
북삼읍 보손1리 해바라기학교	동명면 금암리 사랑의 학교
북삼읍 보손2리 영암학당	동명면 봉암리 봉암문화학교
지천면 심천리 행복서당	동명면 구덕리 구덕다운학교
지천면 달서리 달서한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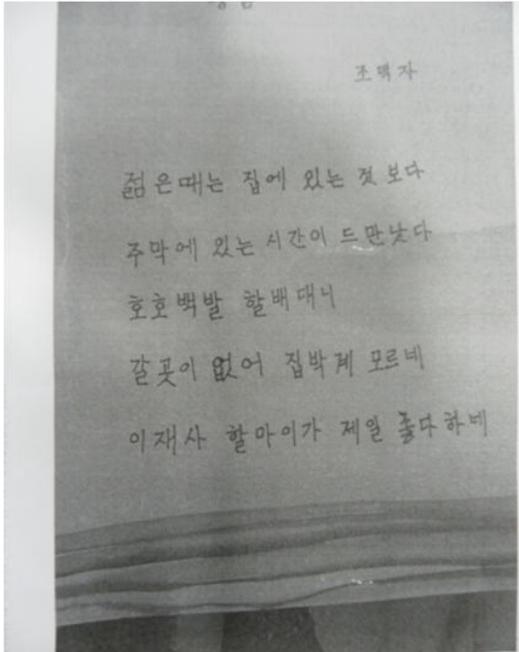
서울역에 전시된
칠곡의 시 쓰는
할머니들

보람학당의
연극하는 할머니들

할머니 합창단
할머니 인형극단



【평생학습특별시】



시가 뭐고
 소화자
 농에 들에
 할일도 많은데
 공부시간 이라고
 일도 돌고
 쉬든 지든 왔는데
 시를 쓰라 하네
 시가 뭐고
 나는 시금치새
 배추새만 아는데



【평생학습특별시】

3 >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마을이 학교다 찾아가는 현장교육

70개의 마을회관으로 평생학습 강사가 찾아가는 교육

전국 최고를 지향하는 칠곡군 평생학습의 저력

노래교실, 요가, 풍물, 발맞사지, 서각, 양말인형만들기





【평생학습특별시】

4 ▶ 주민들이 만드는 풀뿌리 평생학습! 학습동아리 육성

- ▶ 자생적인 학습동아리 등록 : 36개 학습동아리
- ▶ 한사랑회, 토화회, 오카리나양상블, 난설문학회, 예인, 그리메 등
- ▶ 평생학습도시 10년간 꾸준히 지원된 칠곡 평생학습의 저력



【평생학습특별시】

5 ▶ 일자리 창출을 위한 평생학습 자격증 과정 (13개과정)

4050 남성을 위한 자격증 과정 : 3개과정
-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과정, 주택관리사

칠곡평생학습대학 연계 자격과정 : 4개과정
- 노후생활설계사, 인터넷중독상담사, 사례관리사, 성폭력전문상담원

국가자격증과정 : 사회복지사1급, 청소년상담사 3급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과정 : 직업상담사, 방과후 지도사 과정

민간자격증 연계과정 : 심리운동재활교육사, 노인건강지도사



【인문학도시】

1. 평생학습의 바탕위에 서다

- 10년 평생학습의 결과 → 인문학 → 마을만들기
- 2003~ 칠곡평생학습대학 (400명의 졸업생)
- 2005~ 성인문해교육 (18개마을), 찾아가는 현장교육(70개마을)
- 2004 칠곡평생학습축제 → 2014 인문학마을축제
- 전국에서 가장 체계적인 평생학습체제
조례 (평생학습조례, 인문학도시조성사업, 성인문해교육운영, 칠곡평생학습대학)
읍면 평생학습복지센터, 마을회관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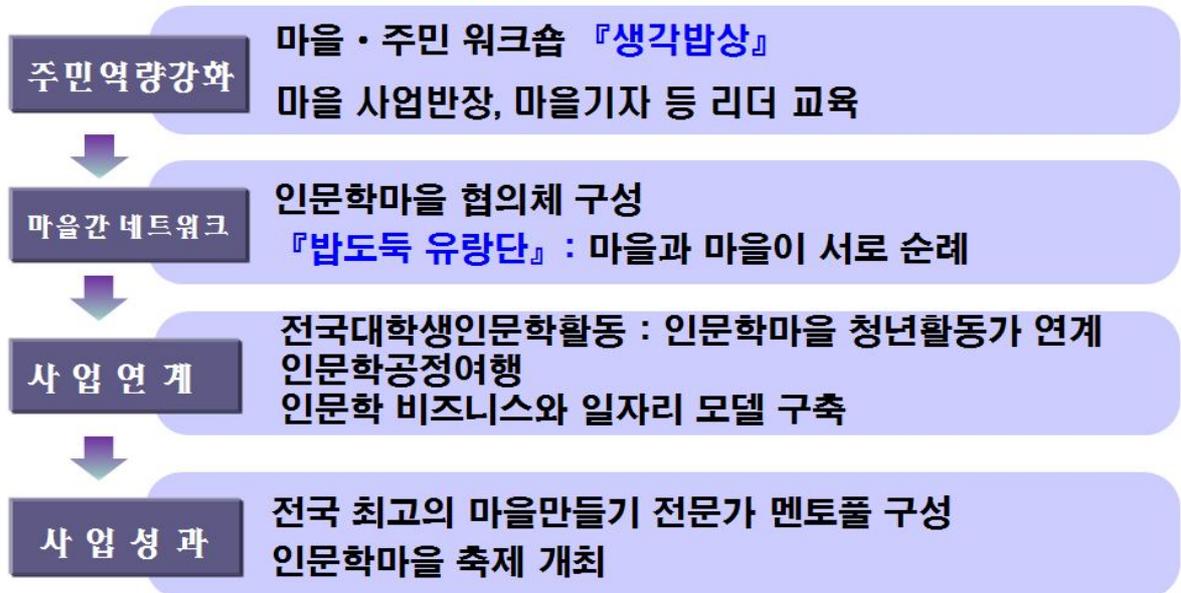
2. 주민과 공동체가 상상하는 연대와 교류

- 기획자가 된 주민 (14명, 마을협의회 멘토), 선생님이 된 주민(56명, 주민강사)
- 요리사가 된 할아버지, 농부가 된 아이들, 예술가가 된 할머니
- 기자가 된 주민, 주민이 되어가는 청년등

칠곡 인문학 마을 만들기 (2015 - 19개마을)



▶ 인문학마을 프로세스



칠곡인문학마을 프로세스 - 생각밥상

2015 삶의 학교, 칠곡 인문학 마을

맛있는 마을, 멋있는 마을, **곰남-2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2015년 인문학 마을살이 활동

1. 삶을 요리하다.
2. 내 멋대로 만드는 수다공방
3. 카메라로 보는 시간여행
4. 나무와 함께하는 노작교실

인문학마을 반장 김성호
010-9515-7458

강바람이 부는 곰남리에서는 사람보다 자연이 먼저 농사를 시작합니다. 자연을 따라 농사를 짓다보면 사람의 일년도 확실처럼 지나갑니다. 고개를 넘어보면 한해가 지나있고, 우리는 한해를 열심히 살아낸 훈장으로 또 한살 나이들었습니다. 인문학마을 곰남의 주민들은 하루를 살고 하루를 배운 이야기들로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과 이야기들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사진사랑방 동아리 회원들은 작지만 소중한 우리 삶의 구성요소를 탐방하며 그들의 가슴과 눈안에 담긴 사진을 전시하고 사진집을 발간합니다. 그 안에 담긴 우리 모두는 마을을 보듬고 살아가며 함께 마을을 가꾸어 갑니다. 이름없이 버려졌던 목재를 재활용하여 화단을 가꾸고, 생활 터전 곳곳에 우리 손길과 애정을 실어 함께살이 할 수 있도록 다시 다듬어 곁에 놓입니다. 광복천 위에 출몰의 수를 놓으며 그러나 우리네 삶의 모습은 생활소품과 민화로 다시 그려지며 우리 삶을 기억해주고, 예순, 일흔, 여든을 넘긴 우리네 아버지들은 투박하지만 섬세한 경성과 입맛으로 손주, 손녀들을 품에 품으시고 요리를 배우며 그들의 통찰을 전수합니다.

2015년 한해에도, 서로의 삶과 터를 보듬고 이야기하는 곰남리의 마을살이는 계속됩니다.

함께하는 인문학 마을

1기 마을 : 곰남2리, 매항2리, 송오2리, 여포1리, 유림서리A, 부영A, 남계3리, 영오1리
2기 마을 : 대동다솔A, 송오2리, 한솔A, 파성하크A
3기 마을 : 우공1기A, 보손2리, 송오1리, 곰오이울림A, 송오힐드피어A, 구덕리, 덕산리

주최 경북교육연구원

주관 곰남2리

칠곡 인문학마을 협의회

칠곡 인문학마을-새로운 가치창조

칠곡의 인문학을 대표하는 스타마을

1. 가산면 학상리 - 학수고대카페, 사람책도서관
2. 왜관읍 금남2리 - 마을공간, 아버지요리교실
3. 북삼읍 휴먼시아 - 마을신문, 북카페, 생활문화공동체
4. 북삼읍 승오3리 - 덕담있는 초상화가
5. 지천면 영오리 - 천왕제
6. 약북면 남계3리 - 적정기술 캠핑
7. 북삼읍 어로1리 - 보람할매연극단, 할매밥상
8. 왜관읍 매원2리 - 한옥마을, 농요
9. 북삼읍 승오1리 - 마음발레터, 100년된 교회
10. 인문학마을협동조합 - 인문학마을 텃밭, 인문학 장터

칠곡의 인문학을 대표하는 스타마을 - 보람할매연극단

한겨레

2015년 10월 14일 수요일 020면 문화

시골 할매들의 무한 도전 “서울 무대도 마~ 별거 아니네”

실버축제 최우수상 '보람할매연극단'

홍부네 가족이 박을 타며 노래를 불렀다. “박이로구나 박, 슬금슬금 졸길하세. 이박을 타기 올랐 아무것도 나오지를 말고 썰방 밥 올림 나 오~야. 열이구나 열이구나” 마당배 갈라진 박에서 뿜어나온 건과였다. 배우들이 캐리커처 의자와 사할을 집어던지자 관객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흥부 마누라는 바로 앞에 앉아 있던 심사위원에게 뽀뽀기를 건넸다. 관객들은 웃음으로 뒤집어졌다.

지난 2일 서울 중구 남산교한옥마을 국악당에서 2015 실버문화축제*가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9월부터 대구를 시작으로 수원, 서울, 광주, 부산, 대전 등 6개 지역에서 도시성을 통해 심혈전 10개팀이 경연을 펼쳤다. 공연 부문 대구· 경북 대표로 참가한 보람할매연극단은 연극 ‘흥부네 박 타겠네’를 선보였다. 경북 칠곡군 북삼읍 어로1리 60~80대 할머니 11명으로 구성된 연극 동아리다. 평균 나이 75살인 시골 할매들의 능동적인 연극에 관객들은 감탄했다.

무대에서 내려온 배우들에게 “평지였잖냐”고 묻자 “평지긴 평지만 밟아나 왔는데, 무대에 올라 밟아 올라가니 하나도 안 별” “대사도 하나 안 틀렸어. 다 잘했어”라고 답했다. 그래서 연출을 맡은 김인경씨는 “각자 보기에 틀렸는데 애도 틀렸다고 해요. 마지막 ‘흥부네’ 하면 다 같이 ‘박 타겠네’ 하고 인사 해야 하는데, ‘그냥’ ‘저렴’ ‘인사 해버렸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제는 인사는 했어야” 하며 다들 신명 나는 눈치다. 뽀뽀기를 심사위원에게 준 최우수(흥부 마누라 역)는 “할매 대표였어는 있었어.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이냐”고 감사사투리에 감사”라고 말했다.

국가행정교육진흥원이 지원하는 실버문화교육 교사인 황씨는 2013년 3월 어로리에서 꾸민 것이다. 마을방에서 일주일에 두 번 연습을 가 르었다. 그때 10월 상인문화유산을 마을을 하는 데 전통기구나 줄잡아 사할만 건 하나도 없었. 황씨가 주심·일제 적인 건 배워야 할 배웠다. 그 과정 중 작가의 동화 ‘흥부네 박 타겠네’를 연구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황씨가 10주년 기념이라는 식으로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구멍이 많은 박을 써는 ‘구멍이 천 년을 잘 만났어’ 식도 안고 잘 가르치고 있다. 하고. 대사도 잘못도 다 달라고 우리는 그



1. 지난 2일 서울 중구 남산교한옥마을 국악당에서 열린 2015 실버문화축제에서 보람할매연극단이 연극 흥부네 박 타겠네를 공연하고 있다. 2. 박을 타며 캐리커처 의자를 타며 관객들의 환호를 받으며 흥부 마누라 역을 맡은 최우수(흥부 마누라 역)는 “할매 대표였어는 있었어. 오늘이 얼마나 좋은 날이냐”고 감사사투리에 감사”라고 말했다.

2년전 어로리 어르신들 한글 공부 문해교육 교사 제안으로 연극 시작 5분짜리 대본도 겨우 외워 무대 올라

지역에 소문나면서 행사에 초청받아 30분짜리 ‘흥부네 박 타겠네’ 도전 ‘긴 대사 외우느라 진짜 박 타질 뻔’ 지난해 경북연극대회서 최우수상 수상

첫 서울 무대도 3년 경력이면 거든 영광도 뜻밖도 새벽엔 먹고 둘러싸서 능동적인 연극으로 관객을 휘어잡아

만 마짜. 대사는 저 일에 당한 것만 외우지 나머지는 몰라 가치고 일어나 힘이 들었는데, 집에 이야기 그러지 하지”라고 말했다. 농사짓는 돌봄이 준비할 것들이 끝나자 시골 할매들이 연극을 한다는 소문이 났다. 주위에서 “다들 작을 좀 뛰니”며 관심을 보이고 각종 행사에 초대됐다. 지난해에는 흥부전을 각 세간 30분짜리 흥부네 박 타겠네에 도전했다. 그 대목에 이르자 할매들은 ‘대사 외우느라 진짜 박 타질 뻔했다’. “정신이 깜짝깜짝하고 오는 줄은 예기지도 못한 거면 까먹는데 그 건 대사를 외기 위한 것” “정신은 노인네들 때문에 산성(산성)에 애를 걸었어” 각자 힘들었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서로 위로하며 “할매들이 공연을 경험할수록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열린 경북 평생학습축제 연극대회에서는 최우수상까지 받았다. 까먹는 어르신들이 글을 배워 연극을 통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황씨는 “대부분 사·오 단락에서 연극을 하지 마라”며 단락에서 연극하는 동안에는 우리끼리 무한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주력 속에서 2개로 줄어떨라고 해서 30분짜리 하면 하면 다들 놀라기도 흥부네 박 타짜야 하고 재미있는 거 다 빼고서 이렇게 잘서 없게

하는 거 우리 할매들 싫어해요”라고 하자 할매들도 “말까지 다 해서. 완전한 작품을 보면 정말로 우스워. 배움 하고 배우세요”라고 장단을 맞췄다. 보람할매연극단이 지역에 알리기 위해서 마을을 돌아다니며 공연하는 이유도 “정신은 노인네들 때문에 산성(산성)에 애를 걸었어” 각자 힘들었던 이야기로 돌아와서 서로 위로하며 “할매들이 공연을 경험할수록 여유를 찾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열린 경북 평생학습축제 연극대회에서는 최우수상까지 받았다. 까먹는 어르신들이 글을 배워 연극을 통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황씨는 “대부분 사·오 단락에서 연극을 하지 마라”며 단락에서 연극하는 동안에는 우리끼리 무한한 걸로 알고 있다”며 “오늘 주력 속에서 2개로 줄어떨라고 해서 30분짜리 하면 하면 다들 놀라기도 흥부네 박 타짜야 하고 재미있는 거 다 빼고서 이렇게 잘서 없게



2015 실버문화축제 수상자

수상내역	부문	지역	수상자	작품명
대상	공연	부산	다남정, 송계사, 나혜선	천년내
최우수상	공연	대전	보람할매연극단	박 타겠네
최우수상	사건	대구	이만수	고흥, 해운안
최우수상	음식	경북	조성남	김초록, 새해편
최우수상	사건	서울	강영남	행복가
최우수상	음식	부산	이연진	가시리
최우수상	음식	대전	유순옥	당신
최우수상	음식	대전	김숙희	케이프

*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 한국문화재단

칠곡의 인문학을 대표하는 스타마을 - 왜관 금남리

경북도민일보

2015년 09월 17일 목요일 016면 사람

인문학마을 칠곡 금남2리 '대통령상'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분야 수상 영예

칠곡군 금남2리 마을은 지난 15일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열린 '제2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 문화·복지 분야에서 금상(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콘테스트는 마을분야(경관·환경, 소득·체험, 문화·복지)와 시·군 분야 2개 부문(마을 만들기, 마을가꾸기)으로 나뉘, 전국 43개 마을과 시·군이 참가해 마을발전 우수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6월 예선(도 콘테스트)을 거쳐 분야별 1위로 선정된 시·군 마을이 중앙콘테스트(본선)에 진출해 종합 현장심사 60%, 발표심사 40%를 최종 합산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칠곡군 금남2리는 그동안 다져왔던 평생교육 및 인문학마을만들기를 통해 이은수 이장(50세)이 마을의 공동체성을 발표함과 더불어 퍼포먼



스까지 더해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금남2리는 마을 아이들의 태권댄스시범과 마을영상과 함께 어우러져 학습동아리인 스포츠댄스 시범에 이어, 아버지 요리교실을 토대로 한 아버지 요리사들의 퍼포먼스 시연으로 관중들의 뜨거운 갈채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칠곡의 인문학을 대표하는 스타마을 - 지천 영오리

대구신문

2015년 08월 31일 월요일 003면 종합

공연부터 이색먹거리까지 주민 단합 돋보여

대상 수상 '칠곡 영오리마을'

'2015 경북 마을이야기 박람회' 우수 마을이야기 대상은 주민 참여가 돋보인 칠곡군 '영오리마을'이 차지했다.

사흘간의 행사 내내 200여명의 주민들이 번갈아 박람회장을 다녀가는 등 단합과 협동의 미덕을 보여준 영오리마을은 그야말로 '놀 줄 아는 마을'임을 널리 알렸다.

특히 마을이야기 박람회 둘째 날인 지난 29일 영오리마을에서 선보인 '천왕제'는 400여 년 동안 마을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며 현재까지도 행해지고 있는 제의다. 실제 천왕제를 지내는 마을 주민들이 참여해 정월 초이레 올리는 '천왕제'를 그대로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칠곡군이 마을 먹거리로 내놓은 두툽떡과 마을 특산물인 참외를 활용한



2015 경북도 마을이야기 박람회 2일차인 29일 오후 경산실내체육관을 찾은 많은 관람객들이 칠곡 영오리마을 부스에서 두툽떡과 각종 농산물로 만든 화덕피자를 맛보고 박현수기자 love4evermn@idaegu.co.kr

이색 '영오리마을표' 피자 등은 새벽부터 주민들이 마을 화덕에서 만들어 오는 정성을 담아 관람객들의 인기를 끌기도 했다.

'천왕제' 공연부터 박람회 전시관까지 마을 주민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하고 참여하는 등 주민의 힘으로 만들어낸 점이 높이 평가돼 대상으로

선정됐다.

배중근 영오리마을 이장은 "관람객들이 이 동네는 진심을 다하는 곳이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우리 마을은 잠먹고 잘놓고 열심히 일하는 곳으로 화목하고 단합이 잘되는 영오리마을에 꼭 한번 놀러오라"고 소감을 전했다.

정민지기자

칠곡의 인문학을 대표하는 스타마을 - 가산 학수고대



칠곡의 인문학을 대표하는 스타마을 - 석적 부영A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현장 사례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이웃과 소통하는 '쌈지장터'

입력 2015-10-14 09:00

공유하기 1



아파트 중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마찰, 원주민과 이주민의 갈등, 빈부갈등 등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갈등들을 지역 문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시작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이 가족공동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최, 한국문화원연합회 주관으로 2009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올해 7년째를 맞이하여 성숙되고 있다. 아자메트 생산전문업체 어반코크

이색 마을장터로 마을 주민들의 소통을 돕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으로 화목을 돕고 있는 것이다.

▶ 모든것은 인문학마을에서 시작되었다

인문학마을 창조지역사업(지역발전위원회), 행복학습센터 (경상북도)
농산어촌 창의아이디어사업 (인문학여행, 농림식품부)

가산면 학상리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13~14,농림식품부), 체험마을
마을미술프로젝트 (문화관광부), 마을기업(고용부)

지천면 영오리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14~15,농림식품부),
행복학습센터 (교육부)

북삼읍 송오2리 마을공동문화조성사업(15~18, 농림식품부)

북삼읍 휴먼시아A 생활문화공동체사업 (문화관광부)

2015 확보 국도비 예산 : 5개사업 15억원
 공모신청중 국도비 사업: 6개사업 60억원
 (교육·문화 소프트웨어사업)



인문학도시조성사업

7 주민들이 만드는 주민들의 인문학! 인문학 공모사업

- 10개 단체가 펼치는 주민들을 위한 인문학 사업
- 왜관라이온스클럽 『내 청춘을 들려주마』, 청년회의소 『청소년토론배틀』
 질곡평생학습대학학생회 『청소년 꿈찾기 진로캠프』
 동화나무 『질곡 어린이 놀이문화단 니강내강 2』,
 질곡영상회 『내가 본 6·25』, 자고묵연회 『쓰다듬는 예술』





인문학도시조성사업

8 >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여행! 인문학 공정 여행

2014 인문학 공정여행

- 지역자원을 여행코스화 : 5개코스 (8회 360명, 외국인 140명)
- 미션, 논의 인문학, 포화속으로, 건축학개론, 사람과 탁로드

농촌체험, 패키지형 관광 → 주민이 주인공이고 질곡에서만 가능한 여행

2015 인문학 공정여행

- 질곡군에서만 가능한 인문학여행
- 질곡의 봄날을 좋아하세요?, 질곡의 3대 명수를 찾아서
- 로컬푸드와 함께하는 요리쇼, 질곡인문학마을 등
- 주민이 주인공인 여행 : 사람책도서관, 마을예술의 기획



인문학도시조성사업

9 > 농촌마을에 인문학의 씨앗을 뿌리자! 전국 대학생 인문학활동

- 전국대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 인문학 활동 : 5개마을 100명
- 스토리북(구술+사진), 공연(마을연극), 미디어(마을라디오)
이야기가 있는 밥상 (문학+요리), 미술(벽화) 등
- 대학생서포터즈 운영 : 인문학 홍보 및 행사 참여, 홍보블로거 운영,





인문학도시조성사업

11 매니아를 양성하는 전국 최고의 인문학도시! 인문학 특성화 사업

인문학아카데미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협약 (2010 ~)

전국 인문학 석학에게 듣는 칠곡인문학의 진수

주민 맞춤형 인문학강좌

칠곡 희망 소셜 디자이너 교육 : 5개 사회단체, 희망제작소
찾아가는 평생학습 인문학 특강 : 8개읍면

북콘서트

저명한 시인과 함께하는 여름밤 책사이로의 산책
인문학축제시 북콘서트 : 저자와의 만남



인문학도시조성사업

12 칠곡의 마을 인문학을 만나다! 인문학 마을 축제

-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고 주인공이 되는 『마을축제』
- 학수고대축제, 단감축제, 천왕제, 연극제, 북페스티벌, 마을신문, 마당놀이 등



- 10월중 18개 인문학마을
- 마을의 특성에 맞는 인문학 자원
- 1년간 인문학사업의 결과



인문학마을 어디까지 왔나요?



질곡군의 평생학습과 인문학은

1

주민의 삶의 무늬를 풍요롭게 하여 배려하는
지역공동체 조성

2

『마을』을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인문학적
상상력이 미래 산업이 되는 새로운 장으로 육성

3

지역학에 기반한 인문학 사업을 통해 주민들의
지역정체성 회복

4

삶의 현장에 녹아있는 생활의 인문학을 사업화 하여
실천인문학으로 승화

가르치고
배우며 기쁨을
나누다

06

경북 칠곡군

칠곡군 인문학
도시 조성

‘마을 인문학’으로 공동체 만들기

한때 서울시에서 노숙자들에게 인문학 강좌를 실시한 결과 다수의 노숙자가 자활의 의지를 다지고 삶의 태도가 개선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사실 인문학 자체가 직업을 얻어 주거나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그러나 인문학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지적 즐거움을 주며, 아울러 자존감과 삶의 만족도를 드높인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인문학 도시를 표방하고 나서는 지자체들이 많다. 그 중에서도 칠곡군이 주목받는 이유는 타 지역의 인문학 도시 프로그램과는 철학부터 다른 바탕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인문학 도시에서는 전문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포럼과 심포지엄, 혹은 강좌가 주요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칠곡군은 다르다. 전문가에게 맞춘 심도 깊은 인문학이 아니라 지역민의 눈높이에 맞는 ‘마을 인문학’을 추구한 것이다.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을 위한 문해교육은 칠곡군이 추구하는 마을 인문학 정신에 무엇보다도 잘 맞았다.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게 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마을은 활기를 되찾았다. 일주일에 한 두 번, 할머니들이 모이는 날에는 부녀회도 어르신들을 위한 간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자연스레 모임을 가졌다. 칠곡군은 이런 마을들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인문학 축제’를 열었고, 자연스럽게 마을도 활기를 띠고, 공동체정신도 강해지게 되었다. 결국 인문학이 마을을 살리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성공 포인트 Tips

- 지역민 눈높이에 맞는 ‘마을 인문학’, ‘주민 중심 인문학’ 구현
- 국내 최초 학점은행제 도입과 평생학습으로 마을지도자 육성
- 순환보직 없이 1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전문공무원이 중추 역할

웃는 백발 소녀들
 그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곳을 찾았을 때 이런 곳도 있었구나
 행복했는 지 모릅니다.

큰 삶을 누리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신들은 시대적으로 그릴 수 있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굶이 굶이 살아온
 마디 못하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월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면 꿈에 보에 보일까

꼬임에 빠져 재산을 다 털려버려
 가더 모

마을 인문학을 통해 공동체를 만들다!

한글 몰라 서러웠는데, 이젠 행복합니다

“기역, 나은, 디글, 리을 …… 가, 가, 거, 저, 고, 교, 구, 규…….”

칠곡군 가산면 학상리의 작은 마을회관. 더듬더듬 ‘가나다라’를 외는 목소리가 들린다. 떨리는 음성, 사이사이 공백이 긴 호흡, 웅기종기 모여 앉아 저마다 얇은 공책 위에 오늘 배운 글자를 꾸욱 꺾 눌러 써 내려가는 이들은 하얀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학상리 할머니들이다. 6학년 1반부터 8학년 9반까지 나이도 제각각이지만, 오랫동안 학마을에 정붙이며 살아온 세월은 매 비슷하다.

3년 전, 칠곡군 인문학 사업의 일환으로 한글 수업을 받기 시작한 열두 명의 할머니들. 그 가운데 두 분은 글공부를 다 마치시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남은 동무들은 어느새 마을 다른 할머니들에게 글을 가르쳐줄 수 있는 실력이 됐다.

“바깥양반한테 글공부한다고 하기 부끄러워서 몰래 숙제 하느라 애 많이 먹었재. 인자사(이제야) 은행 가서 볼 일도 혼자 보고, 간판도 읽고 하는 거 보면 고맙고 신기한기라.”

평생 한글 한 번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된 할머니들은 이제, 해마다 칠곡군에서 여는 ‘성인문해백일장’에 출품할 작품 하나 써 내려갈 정도로 꾀꾀한 새내기 작가들이 됐다.

“개밥을 챙겨주고, 피곤에 지쳐 씻는 등 마는 등 밥도 팽개치고 책가방 들고 한글 공부 배우러 갑니다. 3년을 열심히 배우고 쓰고 밤이면 달력 뒤편에다 글씨 연습을 합니다. 너무 재미있고 선생이 고마워 죽겠어요. 순애아빠요, 내 행복을 아시겠지요. 선생님 덕택으로 당신께 편지도 써보고 간판이고 은행이고 무슨 병원이고 다 읽게 됐습니다. 서투른 게 많지만,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칠곡군 동명면 박우봉 할머니 ‘사랑했던 순애 아빠’ 중에서



사흘 나흘 지우개 하나가 다 닳도록 더듬더듬 적어 내려간 할머니의 글은 마을 잔칫날 낭독회에서 발표된다. 낭독은 천방지축 뛰놀기 바쁘던 어르신들의 코흘리개 손자, 손녀들의 몫이다.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읽어내려 가다가도 아이들은 이내 눈물 한 방울을 툭 떨어뜨리고 만다. 켜켜이 쌓인 할머니의 세월이, 어린 손녀와 할머니 사이에 자못 단단하게 쌓여 있었던 시간의 벽을 자연스레 허물어 버렸기 때문이다.

“경로당 잔치 때 만장(풍물굿패에서 사용하는 소원글)이라는 걸 쓰는데, 한 할머니가 붓글씨로 ‘나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는 손자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다’라고 쓰셨어요. 그거 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아들 내외 먼저 저세상 보내고 그 할머니가 얼마나 어렵게 손자를 홀로 키우고 계시는지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순환보직 없이 10년 넘게 자리 지키는 전문공무원

2000년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생학습을 시작으로 국내 최초의 학점은행제를 도입해 250명의 누적 학위자를 배출한 칠곡군. 평생학습에 이어 3년 전부터 새로이 번지기 시작한 인문학 열기의 중심에는 이렇게 십여 마을의 작은 마을회관에서부터 시작된 문해교육과 학구열에 가득 찬 할머니들이 있었다.

칠곡군의 인문학은 이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련되고 어려운 도시형 인문학이 아닌 오랜 시간 평생학습도시의 면모를 이어온 칠곡군이 풀어가는 인문학, 이른바 ‘사람 중심, 마을 중심의



인문학이란 무엇일까?

2013년, 칠곡은 인문학 도시로 도약하는 꿈을 꾸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국에서 불고 있는 인문학 바람에 편승한 것은 결코 아니다. 10여 년 전부터 칠곡 주민들을 위해 마련된 사회복지, 아동·가족, 농업경영 등 학점은행제와 다양한 평생학습을 들어온 학생들의 열망이 이루어낸 자연스러운 결과다. 칠곡서 11년째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선영 씨는 2000년 개관한 교육문화회관에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꾸려졌던 작은 교양강좌들이 지금의 칠곡 인문학을 있게 한 또 다른 씨앗이 됐다고 말한다.

“당시 교양 강좌를 들던 학생들을 중심으로 자연스레 공부 동아리가 생겨났어요. 평생학습이란 게 마약 같아서 단순 교양강좌에 만족 못하고 계속 질 높은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생겼죠. 그러다보니 2003년 전국 최초로 ‘학점은행제’라는 것도 만들게 됐고요. 농업인구가 많아 농업경영전공을 처음 도입했고 그 뒤 사회복지, 아동·가족 등으로 전공을 늘려갔죠.”

2004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래 지금까지 칠곡은 ‘마을로 찾아가는 현장교육’ 50강좌, 성인문해교육 10개 마을, 한 학기 서른 강좌 이상의 학점은행제, 청소년, 어른들을 위한 인문학과 평생학습까지 모두 150여 개에 이르는 강좌들을 운영하고 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칠곡 주민이 칠곡군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칠곡이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인문학 도시로 자리매김하게 된 데는 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큰 역할을 했다. 타 지역의 순환보직 공무원들과 달리 30여 명의 교육 전문 공무원들이 10년 동안 평생교육, 청소년, 여성, 사회교육으로 분화해 교육 업무에 매진해 온 것이다.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과의 지속된 교류는 칠곡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됐다.

“다른 건 몰라도, 칠곡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끊임없이 증가해 주었던 것, 든든한 고정 수요층이 있었던 것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처음 평생학습과 학점은행제를 모두 이수한 주민들 나이가 이제 40대, 50대가 되었는데, 그들에게 인문학은 자연스러운 요구였죠. 이런 분들의 요구를 반영한 게 지금의 ‘인문학 사업’입니다.”



인문학이 마을에 숨결을 불어넣다

인문학은 어렵다. 데카르트, 니체, 사르트르 같은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철학자의 이름만으로도 긴장감이 밀려오니 말이다. 하지만, 칠곡의 인문학은 철저히 사람 중심, 마을 중심의 인문학이라는 점에서 여느 인문학과 조금 다르다.

“인문학이란 말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있어요. 처음엔 이 인문학이란 말을 ‘인간의 무늬’ 같은 말들로 풀기 위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답은 ‘인문학’ 사업을 주민들에게 맞춰 쉽게 풀어가는데 있었어요. 우리에게 맞는 인문학, 그러니까 ‘마을 인문학’이 필요했죠.”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을 위한 문해교육은 칠곡군이 추구하는 마을 인문학 정신에 무엇보다도 잘 맞았다. 마을 이장들은 어르신들의 문해교육을 위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마을의 문을 열었고, 그렇게 1년, 2년의 시간이 지나 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칠곡의 숨겨진 역사, 발굴되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복원하는 가장 든든한 열쇠가 됐다.

“한 분 한 분 이야기가 영화 같아요. 연륜이라는 것이 그야말로 짱짱하세요. 그걸 무시 못합니다.”

할머니들이 글을 배우게 되면서 마을은 이들을 중심으로 활기를 되찾았다. 일주일에 한두 번,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는 날이면 간식을 챙겨드리기 위해 자연스럽게 모임을 갖기 시작한 부녀회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하나 둘 할머니들의 문해교육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칠곡군은 이들을 위해 비누 만들기 같은 생활 강좌들을 함께 마련해주었다.

“전과 달리 마을행사를 하나 해도, 마을회관에서 수업이 있는 날 이장님이 가서 말하면, 일사천리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공동체 사업도 그만큼 잘 됐고, 마을이 하나가 됐죠.”

마을 어르신들은 누군가의 마당에 설치된 스크린 앞에서 웅기종기 영화를 보았고, 인근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책을 읽었다. 한두 달 아무 일 없으면 몸이 근질근질해질 정도로 새로운 일을 벌이는 데 할머니들은 신바람이 났다.

결국 칠곡군은 작년부터 이런 마을들을 중심으로 특색 있는 마을축제를 열기 시작했다. 이른바 ‘인문학 축제’였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유상자를 모아 설치한 마을 부스에서 배운 것들을 마음껏 풀어냈고, 마을 봉사단체와 부녀회, 평생학습 동아리들도 선뜻 힘을 모아 함께 축제를 즐겼다.

“인문학은 사람이 모여 하는 것이죠. 어르신들 모이는 자리가 만들어지니 사람이 모여 하는 모든 게 이루어졌어요. 갈등도 사라지고, 세대 간·가족 간의 치유가 이뤄졌죠. 그렇게 감동을 가진 마을들은 마을 만들기, 혹은 마을기업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생깁니다. 이게 인문학의 힘이에요.”

인문학의 중심은 나를 세우고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

칠곡 학상리에 살고 있는 진선 씨는 몇 해 전 사회복지학 졸업장을 받았다. 젊은 시절, 대학에 합격하고도 가정 형편 때문에 가지 못했던 그가 7년 만에 이룬 꿈이었다. 학마을 이장으로 마을을 살뜰히 챙기는 그는 여전히 지역복지에 대해 공부하고 싶은 게 많다.

칠곡군은 학점은행제와 평생학습을 바탕으로 진선 씨처럼 마을을 꾸려 가는 지도자들을 길러내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

여전히 다양한 수업들로 꽉 채워진 칠곡의 많은 교육 과정들은 새로운 공부 동아리를 만들고, 학생들은 마을로 돌아가 마을의 선생님이 되고, 복지사가 되며 마을을 치유하는 의사가 된다. 한 예로 칠곡에서 사랑하는 마을기업들 모두가 칠곡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연구하고 힘을 모아 이루어낸 결과물이다.

“점심 때면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밥을 먹을 수 있는 마을기업이 있어요. 홀로 사시는 노인들이 많은 농촌엔 반드시 필요하죠. 어떤 마을이 어떻게 마을기업을 하고 있는지 직접 찾아가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칠곡은 지난 2009년 인문학 도시를 위한 첫 발을 떼었다. 고미숙, 한홍구 씨 같은 굵직한 인문학 강사들을 초청해 1년 과정의 강좌를 열었고 ‘스토리텔링’을 인문학과 함께 엮어 마을의 이야기를 하나, 둘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미리 참가자를 받아 조를 이룬 뒤 칠곡의 인문학적 요소들을 스토리로 엮은 <기억으로 쓰는 칠곡 이야기>는 하나 놓칠 것 없는 칠곡의 지난 세월과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냈다. 집과 가문을 지켜온 종손들의 삶, 칠곡 미군부대와 6.25 전쟁을 겪어온 어르신들과의 만남, 왜관시장에서 70년을 장사해 온 상인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것이다. 주석희 씨는 6.25 전쟁에 참전한 어르신들의 구술작업에 함께 참여했다.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6.25라는 아픈 역사에 대해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전쟁의 참혹한 참상을 영화나 책이 아니라 어르신들 말씀으로 직접 듣고 나니, 칠곡의 ‘다부동전적기념관’에 가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졌죠.”

그녀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인문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토리텔링을 통해 개인 삶의 이야기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들 하나하나가 역사가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인문학을 통해 어른이 되어 간다고 해야 하나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다보니 전보다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 전에는 쉽게 말해버리고 지나쳐버릴 많은 것들을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게 됐죠.”

칠곡은 앞으로 인문학 공정여행, 전국 인문학활동(인활) 등 더 넓은 분야를 아우르는 인문학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인활의 요지는 농촌에 농합을 가듯 전국 대학생들이

마을의 인문학 자원을 찾고 그것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로 푸는 것이다. 칠곡이 인문학 도시라는 것을 알릴과 동시에 마을 중심, 주민 중심의 인문학을 이루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다.

칠곡군 주민들의 평생교육과 학점 은행제에 이어 인문학 도시로의 꿈을 이루기 위해 십여 년을 교육사업에만 매진 해 온 지선영 담당자가 생각하는 마을 인문학이란 과연 무엇일까.

“우선, 평생학습을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공동체를 이루는 게 목표죠. 인문학의 중심은 사람, 나를 반듯하게 세워 마을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나의 인성을 통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는 것, 그게 인문학이죠. 공자 말씀 중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자유를 원하고 사람이 그리워지면 언젠가 사람들이 우리 고장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MEMO

MEMO

MEMO

MEMO

MEMO